

# 소설 창작 교육의 효과적인 방법론 모색

김춘규\*

|| 차례 ||

- I. 소설 창작 교육의 변화와 동향
- II. 텍스트 읽기와 소설 창작 교육의 통합 방안
  - 1. 소설 창작 실습의 운영 원리
  - 2. 소설 창작 워크숍
- III. 소설 창작 활성화를 위한 책 만들기 프로그램
  - 1. 통합적 소설 창작 교육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소설 창작 교육의 효과적인 방법론에 대해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는 소설 창작 교육의 변화와 동향, 텍스트 읽기와 소설 창작 교육의 통합 방안, 소설 창작 활성화를 위한 책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창작 교육의 방향성을 연구하였다. 더구나 창작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읽었던 다양한 텍스트가 글쓰기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은 여러 연구자가 공동으로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주안점을 둔 것은 텍스트 읽기와 소설 창작 교육의 통합 방안, 그리고 책 만들기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습자에게 무엇인가를 창작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창작 자신의 책을 출간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주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시작은 학습자의 관심, 흥미와 연관된 주제를 스스로 선정하여 소설 창작을 해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텍스트 읽기와 창작 과정을 단계별로 지도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또한 책 만들기 프로그램은 교수자와 학습자의 협동수업으로 진행하기에 적절하다.

---

\* 국립순천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강사

이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는 텍스트를 읽고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고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소설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설 창작 교육의 효과적인 방법론 모색은 책 만들기 프로그램과 창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방안이 될 것이다.

주제어: 텍스트 읽기, 창작 교육, 소설 창작 실습, 통합 교육, 책 만들기 프로그램

## I. 소설 창작 교육의 변화와 동향

소설 창작 교육의 효과적인 방법론 모색은 텍스트 영역, 수업 영역, 창작 영역, 나아가 교육 환경 등 여러 영역에 두루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실제 창작 수업에서 창의성의 복합적인 요인들을 학습자의 창작 과정에 어떻게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성공적인 소설 창작 교육을 위해서 중요한 관건이 된다. 그리고 소설 창작을 위해서는 이론에 정통해야 하고 실기를 숙달하는 것이 교육 방법론의 핵심이 될 것이다.

소설을 쓰는 구체적인 단계와 실질적인 과정은 이론과 실습을 반복 훈련함으로써 작품의 질을 제고하고 글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감을 기르는 것이 소설 창작 교육의 목표이다<sup>1)</sup>. 이와 관련하여 소설 창작 교육의 방법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sup>2)</sup>.

첫째, 학습자의 창작 욕망의 고취이다. 강의 현장에서 학습자의 창작에

1) 나소정, 「문예창작교육론의 구조적 지형과 논점」, 『한국문예창작』제23집, 한국문예창작학회, 2011, 12, p.136.

2) 김춘규, 「소설 창작 교육의 방법론 연구」, 『어문학』제133집, 한국어문학회, 2016, 9, pp.118-120.

대한 의지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창작의 목표가 바르게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방법과 도구가 적절하게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소설 창작 교육은 정서, 사상, 상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창조적 활동을 지속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관습적인 창작활동에 변화와 자극을 줄 수 있다.

둘째, 소설 창작 교육의 효과적인 방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서사적 사고력과 언어적 구성력이 구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체험적 학습과정(텍스트 읽기 포함)에서 삶을 서사형태로 성찰함으로써 인간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눈을 갖게 된다.

셋째, 소설 창작 실습의 운영 원리에서는 소설의 주제(소재)를 창작과정을 통하여 습득함으로써 작품의 이해와 감상, 분석과 서술 등을 구체적으로 학습하게 한다. 또한 학습자의 창작 과정을 시점의 활용과 인칭의 활용으로 교육할 수 있다. 즉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전지적 시점으로 나누어 가장 적합한 서술방법을 찾아야 한다. 시점의 선택에서 유의할 점은 처음과 끝이 일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하여, 침삭지도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sup>3)</sup>

침삭지도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해도 단기간에 소설 창작 능력이 향상되기는 어렵다. 이런 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협력학습을 권장하고, 교수자는 침삭 완료 후 학습자를 대상으로 워크숍과 중간 점검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소설 창작 교육에서 부딪치는 첫 번째 관문은 ‘소설 창작 교육’ 자체에 갖는 의문과 회의이다.

나소정은 과연 ‘소설 창작 교육’은 가능한가, 문학은 학습과 훈련으로 언어될 수 있는 것인가, 문예창작에 있어서 이론의 습득과 적용이 과연 효

3) 김준규, 「소설 창작 실습을 위한 수업 방안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제62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pp.158-161.

과적인가, 이러한 물음들은 강의 일선에 선 교수들의 고민을 담고 있는 것이면서 소설 창작 교육의 현실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특별한 주목을 요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작품발표와 합평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모형이 고전적인 의미에서 문하생을 길러내는 방식에 가깝다. 소위 도제식 문학수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문예창작학계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sup>4)</sup>.

그럼에도 학습자가 창작 과정에서 범하게 되는 반복적인 실수와 시행착오를 교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학습자 개개인의 개성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발전적 충고가 가능하다 하겠다. 또한 학습자 상호간의 평가 토론은 자신의 글이 어떻게 평가받는지 하는 점을 여실히 볼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자신의 글이 지닌 문제점들을 객관적으로 발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더하여 학습자들은 교수자의 첨삭지도, 학습자간의 합평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어떤 성격의 글이 잘 소통되는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다.

본고에서는 교수자의 첨삭지도와 학습자의 합평 모두가 좋은 분석 사례가 되어준다고 믿는다. 물론, 전제가 있다. 교수자는 일회성의 고정된 매뉴얼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실습 과정과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 학습자들을 격려하고 이끌어야 한다.

위의 논의 외에도 여러 연구자들이 문예창작교육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sup>5)</sup>, 창작론의 입장에서 시점 활용에 대한 비평의 틀을 세우고 실제 작품의 분석에 적용하여 소설 창작의 평가 도구 개발을 시도한 연구<sup>6)</sup>, 글쓰기

4) 나소정, 앞의 논문, pp.146-147.

5) 장영길, 「문예창작교육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예창작』제1집, 한국문예창작학회, 2002, pp.255-275.

6) 이미란, 「창작 소설의 평가 기준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제42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3, pp.363-364.

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 읽기와 쓰기의 통합 방안을 모색한 연구논문<sup>7)</sup> 등이 있다.

이상의 논의들은 창작 교육의 이념과 방향성을 점검하고 교육 과정의 내용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그 교육 내용을 체계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는 창작의 이론화와 실천 논리를 탐구하는 소중한 창작 교육의 성과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창의적 기법이나 발상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교재나 이론에서 많이 거론 되는 소설 창작 실습과 교육 방법론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공통된 주제를 들자면, ‘주제가 효과적으로 드러나는가?’, ‘한 장면에 한 시점이 쓰이고 있는가?’, ‘인칭 서술에서 부자연스런 작가의 개입은 없는가?’, ‘서술자 혹은 시점인물의 목소리는 개성적인가?’, ‘배경을 이루는 요소는 올바른가?’, ‘사건은 잘 전달되고 있는가?’, 등의 소설 창작 실습과 교육 방법론은 여러 가지 창작 방안들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소설 창작 교육 방법론을 학습자의 창작 과정을 어떻게 반영하여 운영하느냐의 문제이고, 성공적인 창작 교육을 위해서 중요한 관건이 된다.

## II. 텍스트 읽기와 소설 창작 교육의 통합 방안

### 1. 소설 창작 실습의 운영 원리

텍스트 읽기는 자료가 담고 있는 의미를 재구성하는 활동이다. 반면에

---

7) 읽기와 쓰기 지도의 현황, 읽기-쓰기 통합 지도의 목표와 방향, 읽기-쓰기 통합 지도 방안을 중심으로 학습자 상호 피드백의 결과를 반영한 수정된 텍스트를 첨삭하는 방안을 연구 발표한 바 있다. 윤제연, 「대학 글쓰기에서의 읽기와 쓰기 통합 방안 모색」, 『한민족어문학』 제66집, 한민족어문학회, 2014. pp.113-141.

소설 창작 실습은 글의 주제(소재)에 맞추어 의미를 재현하는 창작 활동이다. 따라서 창작 협력 학습의 특징은 모둠활동을 통해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고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더 중시한다.

문학창작교육론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소설을 창작하는 활동에 있어서 완성된 결과물과 그 성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란 점은 분명해 보인다. “창작교육에 관한 논의는 그 출발점에서 문학교육이 전문적인 작가를 기르기 위한 것이 아니며, 창작교육을 통해 산출한 결과물은 작가가 창작한 수준의 소설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함의”<sup>8)</sup>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문학창작교육의 방향은 이와 같은 관점에 의거해 소설 창작보다는 소설의 이해, 수용 과정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창작 수행의 과정에서 학습자가 어떤 유의미한 경험을 갖게 되느냐 하는 점”<sup>9)</sup>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이를 ‘학습자의 세계 인식의 경험, 세계 탐색의 경험, 세계 창조의 경험’으로 나누어 접근한다.

소설 창작 교육의 평생 교육적 가치의 제고를 주장하거나, 학습자들의 ‘창작노트’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소설 창작 경험을 지식으로 내면화하는 방법을 탐색함으로써 ‘창작의 맹목성’을 경계하고 학습자의 인격적 성장과 자기실현을 목표로 하는 창작교육의 구현을 실험하는 논의<sup>10)</sup>가 이러한 관점을 탄력적으로 받아들인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다.

더구나 서사구조는 기본적으로 선형구조로 배열된다. 페리는 텍스트의 순서성에 대해 ‘모형지향(Model-oriented)’과 ‘수사 또는 독자지향

8) 김혜영, 「소설 창작교육의 방향」, 『문학교육학』제30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09, 12, p.366.

9) 김근호, 「허구 서사 창작 교육의 내용 체계화-세계 경험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제30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09, 12, p.348.

10) 김근호, 「소설 창작 경험의 성찰적 지식화」, 『국어교육연구』제21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2008, 06, pp.131-167.

(Rhetorical or reader-oriented)'의 구분을 제시했다. 이는 텍스트의 순서에 따른 대상을 충실하게 모방하려는 '모형지향'의 텍스트보다 '수사 또는 독자지향'의 경우에 더 생산적으로 작용한다. 어떤 독서 단위가 다른 단위들 보다 더 앞에 위치함으로써 독자(학습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크고 다양한 것이다. 따라서 독자(학습자)의 사고 안에서 텍스트의 첫 단락, 독자가 예상하는 인물, 사건, 배경, 지나간 것을 회상하는 스토리, 마지막에 문장과 결말 등이 역동적으로 갈등하게 되고, 독자(학습자)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텍스트의 의미를 추론해낸다.

이는 독자(학습자)는 화자가 전달 행위를 통해 눈앞에 보여준 대상에 대해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가치관과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획득한 단서를 통해 판단하며, 이는 독자(학습자)가 화자와 인물 사이, 또는 내포자와 화자 사이의 공간(거리)에 대해 탐구함으로써 이루어진다.<sup>11)</sup>

본고에서는 소설 창작 실습과 운영 원리는 (<표1>참조) 이전에 직·간접적으로 읽었던 다양한 텍스트가 의미 구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달리말하자면 다른 학습자의 글을 읽거나, 이전 단계까지 쓴 자신의 글을 읽는 과정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창작 협력의 운영 원리'는 창작을 할 때 이전에 학습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

11) 홍인영, 「소설의 수사적 읽기 교육 연구를 위한 시론(詩論)」, 『한민족어문학』 제80집, 한민족어문학회, 2018. 6. 30, pp.60-61쪽 인용.

〈표 1〉 소설 창작 실습의 운영 원리

운영 원리	내용
1. 텍스트 읽기와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에게 창작과정을 체험하게 하여 인간과 사회에서 주제(소재)이 끌어 내고 형상화하는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창작 실험을 시도하여 소설 창작의 방법을 깨닫는 데 초점을 둔다. 더하여 소설 창작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소설의 기본 원리를 파악하고 창작 과정을 검토한다. 또한 기성작가의 소설 창작 과정을 살펴봄에 그 효과와 문제점들을 파악한다.</li> <li>• 소설 창작 실습과정에서 기성 작가의 텍스트는 인물, 사건, 배경 등 창작 기법까지 읽는 과정을 통해 추려내야 한다.</li> <li>• 소설 창작 실습은 단지 내용의 인지 과정의 산물이 아니라 복잡한 상호과정의 산물임을 인식해야 한다.</li> </ul>
2. 학습자(창작자)와 독자 상호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는 소설 창작 실습을 할 때 독자가 누구이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디에 호응할지를 예상하기 때문에 쓰는 행위는 저자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작가와 독자가 같이 참여하는 과정이다.</li> <li>• 동료 협력 과정에서 작가와 독자의 관계가 성립된다.</li> </ul>
3. 소설 창작 실습과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설 창작 실습은 주제(소재), 독자층에 따라서 글쓰기의 인지적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인지 요소가 상황과 맥락에 맞추어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인지적 활동이다.</li> <li>• 소설 창작 실습과정에서 동료학습자의 반응을 통해 수행 과정의 오류와 문제점을 수정 할 수 있다.</li> <li>• 동료학습자와 소설 창작 실습의 반복 과정을 통해 창작 과정의 절차적 지식을 학습하는데 유용하다.</li> </ul>
4. 합평의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평은 어떤 특별한 주제(소재)에서부터 구체적인 아이디어 생성까지 절차적 수행 방법을 동료학습자에게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li> </ul>
5. 첨삭지도의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수자는 학습자가 수행한 창작물에 대해 수정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고, 구체적인 자극을 준다.</li> </ul>

〈표 2〉공동창작 절차 활동은 ‘창작목표 설정-창작 장르선정-창작 활동 구성-공동창작활동-첨삭지도’와 같이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창작 활동은 단일 창작, 장르 선택창작, 공동창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선택창작과 공동창작은 텍스트 읽기와 창작활동을 결합한 통합 교육이다.



〈표 2〉 공동창작 절차

1. 절차	활동 내용 및 운영상의 유의점
2. 창작 목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작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함으로 뚜렷한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li> </ul>
3. 창작 장르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작 장르에 따라서 창작활동의 활성화가 결정된다.</li> <li>상호의존성을 높일 수 있는 주제(소재)를 선정한다.</li> </ul>
4. 창작활동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자의 구성 인원은 작을수록 좋다. 이는 무임승차 예방, 상호작용의 기회가 확대된다.</li> <li>공동창작은 3명이 적당하다. 이때 테스트 분석하기, 구성 검토하기, 문장 교정하기 등이 포함된다.</li> <li>주의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자 스스로 구성이 만들어지면 동기화, 책임감 및 자긍심 높일 수 있으나, 창작의 효율성보다 친밀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적 친화 활동으로 변질될 수 있다.</li> <li>교수자는 공동창작을 시작하기 전에 학습자의 작품 샘플을 받아 능숙한 학습자와 그렇지 못한 학습자를 섞어 구성한다. 예)백일장 처럼 특정한 주제(소재)를 주고 글쓰기 능력을 파악한다.</li> </ul> </li> </ul>
5. 공동창작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창작목표: 어떤 창작기법을 습득하기 위한 것인지 목표를 정한다. 예)창작목표-주제(소재)설명-기성작가 텍스트 검토-내용구성-공동창작하기-교정하기-평가하기.</li> </ul>
6. 침식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수자는 창작활동이 끝나면 합평과 침식지도를 해준다.</li> </ul>

본고 외에도 다양한 소설 창작 교육 방안과 수업 모형의 개발 및 그 성과들이 있다. 그 가운데 소설 창작 교육의 현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학(學)으로서의 문예창작교육’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김성렬 교수의 글<sup>12)</sup>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현 창작교육의 틀과 방법론의 유효성 재고와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길은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교수학습방법의 지속적 개발에 있음을 주지시킨바 있다. 그는 창작정신의 전수방법, 문학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문제, 그리고 교육제도의 문

12) 김성렬, 「문예창작교육의 현황과 전망」, 『한국문예창작』제1집, 한국문예창작학회, 2002. 6. pp.219-237.

제와 관련하여 논의를 펼치고 있다.

이 밖에도 수필을 통한 글쓰기 방법론을 소설 창작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과 그 효용성에 관한 연구<sup>13)</sup>, 작가, 작품, 독자의 소통 관계, 교육 내용으로 ‘시점’ 개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효과를 파악한 연구<sup>14)</sup> 등이 있다.

위의 논의는 창작 교육의 이념과 방향성을 점검하고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는 창작의 이론화 가능성을 탐색하는 동시에 소설 창작 교육의 이론화와 실천 논리를 탐구하는 소중한 성과들이라 할 수 있다.

## 2. 소설 창작 워크숍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습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창작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게 개발된 교수법 가운데 하나이다. 사실 창작을 가르치는 데 경험이 중요하지 않다고 아무도 말 못 할 것이다. 이는 교수자와 학습자가 참여하는 대화적 상호작용에서 서로의 생각을 비교하고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면서 새로운 관점의 의미를 창조한다.<sup>15)</sup>

학습자는 창작 워크숍을 통해 동료의 반응과 판단을 되새겨보며 텍스트로 돌아가 거듭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자유로운 해석을 시도해 본다.

따라서 학습자는 창작 워크숍을 통해 실제로 글을 써볼 뿐만 아니라, 그 결과물으로써 독자(동료)와 소통하는 경험을 갖게 된다. 창작 워크숍에서 텍스트 읽기 활동은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제(소재) 및 장르 탐구’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13) 정영길, 앞의 논문, pp.255-275.

14) 정진석, 「소설교육에서 소통론의 실천 양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제49권, 국어교육학회, 2014, pp.590-592.

15) 문선화·김은주·이삼형, 「작문 교육 관점에서 대화주의와 신수사학 비교고찰」, 『국어교육학연구』 제46집, 국어교육학회, 2013, pp.377-378.

〈표 3〉 소설 창작 워크숍 과정

활동내용	유의사항
1. 장르 정하기	-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 주제(소재) · 장르가 겹치지 않도록 조정 한다
2. 텍스트 읽기를 통한 장르 분석하기	• 텍스트 읽기와 분석하는 과정이 창작 워크숍의 필수 활동을 강조한다. - 장르에 대한 지식과 전개 방식에 대한 지식을 얻도록 한다.
3. 주제(소재) 정하기	• 학습자가 직접 하도록 한다. - 관심 분야에 따라 알고 싶은 것, 알아야 할 것을 정한다. - 창작세계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 독자(동료)와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소재)를 대상으로 한다.
4. 조직하기	• 개요작성 - 문장개요, 도식화 기법 등을 학습한다. • 아이디어 생성 단계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5. 초고쓰기	•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써본다.
6. 고쳐 쓰기	• 내용첨가, 삭제, 수정을 통해 작품을 가다듬는다. • 학습자의 상호작용, 교수자와의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 • 동료 평가와 교수자 평가를 토대로 수정한다.
7. 교정하기	• 창작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묘사의 정확성, 등장인물의 성격, 대화의 눈높이, 문단 나누기, 올바른 문장,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 등을 교정한다.

위의 <표 3> 창작 워크숍 과정에서는 초고 쓰기와 고쳐 쓰기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묘사의 중요성 때문이다. 묘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상으로부터 받은 인상이나 느낌을 생생하게 감각적으로 반영하여 비유와 수사를 사용’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sup>16)</sup> 이는 학습자들이 ‘소설 창작 방법’을 어떻게 습득하고 활용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소설 창작의 최종적인 목표는 ‘창의적 작품이 나오도록’ 이론을 교육하는 일이다. 그 예로 소설 창작

16) 김수경, 「읽기를 통한 묘사의 방법 고찰」, 『현대문학이론연구』 제70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7, p.8.

실습 이론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소설 창작 교육의 이론

1	모티프-주제(소재)의 개념, 자료 수집의 중요성, 주제(소재)를 다루는 방법, 주제(소재)를 파악하는 방법
2	등장인물-인물의 유형, 인물 제시의 방법, 인물을 형상화하는 방법, 주인공의 자질
3	플롯-시작-중간-끝의 유형, 플롯의 전개방법, 행위 및 플롯의 순서.
4	서술자 및 시점의 유형-소설가로서의 전지, 중립적 전지, 목격자로서의 '나', 주인공으로서의 '나', 3인칭 복수 선택적 전지, 3인칭 선택적 전지, 극적 제시
5	배경-공간적 배경, 사회적 배경, 시간적 배경, 정신적 배경
6	문체-어휘의 선택, 구문,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서술어법
7	묘사-묘사의 방법, 배경 묘사, 인물 묘사, 사건 묘사, 사물 묘사/시간속도·거리(소설에서의 시간, 시간과 속도, 거리)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설 창작 이론의 분석은 여러 측면에서 학습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실용적 관점에 입각한 창작이론이다. 따라서 소설 창작 이론의 체제는 머릿속의 창작구상에서부터 한편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그 과정을 창작의 순서에 따라 배열하고, 그 단계별 구성 요소를 범주화하여 각 장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는 기성작가의 작품을 읽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 효과는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소설이라는 장르를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를 제공해준다. 둘째, 소설과 친밀감을 형성해준다. 셋째, 독서를 통해 문장력 배양에 도움이 된다. 넷째, 배양된 문장력으로 소설 창작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왜냐하면, 읽기가 바탕 되지 않은 창작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읽기와 창작은 긴밀하게 서로 맞물려 있는 것이다. 달리말하자면, 주어진 텍스트

에 대한 이해, 즉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고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이에 그치지 않고 내용의 타당성, 표현의 정확성, 효율성 등을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의미를 재구성해야 한다.

또한, 창작의 질서와 코드는 작품에 숨겨져 있다는 적극적인 이해를 통해 학습자 나름의 창작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 이는 대상 텍스트를 통해 이해 능력을 높이고, 기존 텍스트를 바탕으로 창작과정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모티프, 등장인물, 플롯, 서술자 및 시점의 유형, 배경, 문체, 묘사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창작의 패턴과 그 활용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단계이다.

### Ⅲ. 소설 창작 활성화를 위한 책 만들기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습자들에게 사고를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자신의 창작세계를 확립하여 장차 자신의 책을 쓸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다. 본고 외에도 다양한 교수학습 설계 방안과 수업 모형의 개발 및 그 성과들이 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볼 것은, 소설 창작 교육의 전반적인 성과를 살펴보고 있는 김혜영의 논의<sup>17)</sup>가 그렇다.

그의 연구는 창작 교육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성과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설 창작 교육은 본격적인 소설 창작으로 나아갈 수 없는 다양한 조건으로 인해, 소설의 이해를 심화시켜 주기 위한 활동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결론적

17) 김혜영, 「소설 창작교육의 방향」, 『문학교육학』제30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09, 12, pp.357-392; 나소정, 앞의 논문, p.151 참고.

으로 말하자면, 창작을 위한 교육이든 창작을 통한 교육이든, 실질적인 성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설을 이해하고 창작하는 과정은 서로 맞물려 있으며, 둘은 상보적 관계로 맺어져 있다.

본고에서는 5단계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표 5> 참조)을 통하여 학습자의 관심, 자신감, 창작 능력과 연관된 주제를 스스로 선정하여, 텍스트를 조사 하면서 진행하게 된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교수자의 첨작지도<sup>18)</sup>와 학습자의 협동수업으로 진행하기에 적절하다.

(표 5) 책 만들기 프로그램의 5단계

단계	중요 사항	교수자의 지도 내용
1단계: 주제(소재) 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제(소재)요건-학습자들은 상호토론을 통하여 부적절한 주제(소재)를 걸러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습자들이 정한 주제(소재)에 대해 동료학습자들이 질문하고 답변 하도록 한다.</li> </ul>
2단계: 스토리텔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제(소재)를 중심의 스토리텔링을 정리 하여 제출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수자는 학습자들의 주제(소재)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첨삭해 준다.</li> </ul>
3단계: 완성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책의 표지와 저자 소개를 써보게 한다.</li> <li>첫 장에 구성과 차례 쓰기를 해 본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소설작품을 참고하여 책 표지와 작가의 말을 써보도록 유도하고 용기를 북돋는다.</li> <li>소극적인 학습자는 교수자가 집중 관리한다.</li> </ul>
4단계: 제출과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책 만들기 프로그램 계획서가 제출 되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교수자는 조언을 해준다.</li> <li>학습자에게 작가의 말을 써보게 하는 활동은 매우 유용하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퇴고를 한다. 이후에는 학습자 상호간에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li> <li>교수자는 학습자들이 오류를 범하는 사례를 정리해준다.</li> </ul>
5단계: 출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수성과물을 선정은 반드시 교수자와 학습자가 공동으로 한다. 그런 다음, 격려하고 시상을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과물은 학과홈페이지, SNS를 활용해 홍보한다.</li> <li>공동 출판, 개인출판이 있지만, 공동출판이 바람직하다.</li> </ul>

18) 소설 창작 교육은 소설 제재의 개념, 창작과정(인물, 사건, 배경)을 통하여 습득함으로써 작품의 이해와 감상, 분석과 종합, 서술과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학습하게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소설 창작 활성화를 위한 책 만들기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자주적 능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소설 창작 교육은 창의적 자발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창작에 필요한 사고전략이나 과정을 도와주는 다양한 전략으로 활용 할 수 있다. 특히,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생산한 결과물을 출판 형태로 공유함으로써 창작능력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책 만들기 프로그램의 5단계 교육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작은 텍스트 읽기를 포함한 쓰기활동을 수반하며 창의적 사고와 관련이 있다. 둘째, 텍스트 읽기와 창작 활동은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라 학습자 및 교수자와의 협동이 중요하다. 셋째, 책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텍스트 읽기와 창작 교육을 통합하고 학습자를 저자로 대우하면 문제의식과 창작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

## 1. 통합적 소설 창작 교육

근래 들어 소설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내적으로는 자아 탐구의 양식으로서의 소설 장르로부터 벗어나는 징후가 포착되는 동시에 외적으로는 다른 미디어들과의 소통과 차이를 동시에 생산해 내야 하는 이율배반의 과제와 더불어 미디어 네트워크 속에 자리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더불어 소설 창작 교육의 현장도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경향 혹은 변화와 관련하여 소설 창작 교육의 제반 조건과 성격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협동을 통해서 글쓰기를 하는데 필요한 과정과 전략을 안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소설 창작을 하나의 문화로 상정하여 창작 과정을 서로 협의하고, 결과를 동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통합적 소설 창작 교육의 특징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통합적 소설 창작 교육

특징	내용
1.소설 창작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의력을 신장한다.</li> <li>• 창작 문화를 형성한다.</li> </ul>
2.자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의 작가세계에 따라서 창작 목표와 주제(소재)를 선택하고 창작해 본다.</li> </ul>
3.협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작 과정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고 창작 결과를 공유한다.</li> </ul>
4.교수자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동적 창작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을 조성한다. -창작 과정과 전략을 안내한다.</li> </ul>
5.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작 과정에서 수정과 공유를 위하여 자기평가와 동료 평가 함께 이루어진다.</li> <li>• 교수자의 학습자 평가는 비공식적으로 실시한다.</li> </ul>

통합적 소설 창작 교육은 능력(abilities)을 구성하는 기술(skills)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의미한다. 특히, 통합적 소설 창작 교육에서 전략이 중요한 이유는 우선 텍스트 읽기와 창작이 몇 단계의 인지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인지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을 습득하면 쉽고 자연스럽게 읽고 창작할 수 있다.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은 문장지도의 충실성과 정확성이다. 필자는 학습자의 글쓰기가 끝나면 문장지도를 해 줄 것을 강조한다. 문장지도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의사소통을 통해 제시한 문장 묘사방법을 숙지하고, 문장지도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이나 보완 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또한 학습자들에게 텍스트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작품의 주제가 다르게 되고 내용도 다르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텍스트 읽기의 일차적인 목표는 텍스트를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지만 창작을 위한 텍스트 읽기는 좀 더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부분이 요구된다. 소설 창작을 위한 텍스트는 내용을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텍스트의 구성과 내용, 구성 내용의 연관성까지 파악해야 가능하다. 비록 글쓰기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춘 학습자라고 하더라도 성실성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앞서 언급한데로 작품의 독립적인 평가와 함께 프로그램 과정의 능력 향상에 대한 평가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표 7〉 교수자의 평가 항목

평가 요소	통합적 평가	일관성	친화성
인물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성화 되었는가?</li> <li>• 인간성에 대한 발견이 있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물의 성격·육구는 플롯의 단계를 통해 나타나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정·내적가치·욕구·갈등이 드러나는가?</li> <li>• 인물의 변화는 자연스러운가?</li> </ul>
시점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전달되었는가?</li> <li>• 주제는 잘 드러났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로 다른 서술자의 목소리는 구분되는가?</li> <li>• 서술자의 태도는 확실히 드러나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술자·시점인물의 내면이 잘 드러나 있는가?</li> </ul>
배경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경은 생생하게 제시되었는가?</li> <li>• 주제를 드러내는 데 기여하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경묘사는 시점에 부합하는가?</li> <li>• 배경은 인물의 동기와 행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적이고 분명한 세부 사항을 제공했는가?</li> <li>• 배경묘사는 시점인물의 감정을 반영하는가?</li> </ul>

〈표 7〉 교수자의 평가항목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창의적 요소인 인물구성, 시점구성, 배경구성. 둘째, 통합적 평가. 셋째, 일관성과 친화성이다. 여기에 거론된 평가 항목의 장점은 학습자의 부족한 점이 발

견되었을 시 문제점을 파악하고 피드백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IV. 맺음말

소설 창작 교육의 효과적인 방법론은 텍스트 읽기와 창작을 통합한 교육 방안이다. 이는 학습자의 자주적인 창작 능력을 길러주기 위함이다. 텍스트 속에서 세계와 현실에 대응하는 상상적 주체들의 다양한 욕망과 그 욕망을 공적 영역에서 가치화하는 서사적 행위는 단순히 대중적 취향이나 시대적 경향성을 반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언어 매체를 중심으로 하는 소설적 서사를 단순히 인물의 갈등 상황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축소하여 이해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소설 창작 교육의 효과적인 방법론 모색은 서사 형식에 대한 장인적 기법의 전수라는 데 한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소설 속에서 펼쳐지는 재현과 상상의 매트릭스는 다양한 지식 체계들이 주체의 행위를 통해 표출되고 그 가치를 검증받는 공간이다. 소설은 그런 점에서 다양한 사회 문화적 상상력이 경합하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특정한 요구나 욕망의 형태로 형상화되는 공적 담론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특정한 개성적 인물이 특정한 사건을 겪고 그 속에서 그 자신의 개별적 인식을 획득하는 것으로 소설을 축소하여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본 발표에서 제안하고 있는 ‘텍스트 읽기와 소설 창작 교육의 통합 방안’과 ‘소설 창작 활성화를 위한 책 만들기 프로그램’의 목적은 텍스트를 활용한 창작 모형과 텍스트를 활용한 창작 교육의 가능성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교수자가 학습자들과 함께 소설 창작을 공부할 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업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모든 소설 창작 교육을 텍스트 분석 위주로만 할 수 없으며, 또한 학습자 중심의 소설 창작 교육에 집중할 수도 없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수업 방법을 개발해 오고 발전해 온 것이 그 단적인 예라고 하겠다. 이 발표는 학습자가 이론 소설 창작의 성취 요인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하여 소설 창작의 즐거움을 길러주기 위해서다. 끝으로 발표자의 연구가 창작 교육의 진단과 지도의 사례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근호, 「허구 서사 창작 교육의 내용 체계화-세계 경험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제30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09, pp.313-355.
- \_\_\_\_\_, 「소설 창작 경험의 성찰적 지식화」, 『국어교육연구』제21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2008, pp.131-167.
- 김수경, 「읽기를 통한 묘사의 방법 고찰」, 『현대문학이론연구』제70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7, pp.5-26.
- 김성렬, 「문예창작교육의 현황과 전망」, 『한국문예창작』제1집, 한국문예창작학회, 2002, pp.219-237.
- 김준규, 「소설 창작 실습을 위한 수업 방안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제62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pp.145-169.
- \_\_\_\_\_, 「소설 창작 교육의 방법론 연구」, 『어문학』제133집, 한국어문학회, 2016, pp.117-141.
- 김혜영, 「소설 창작교육의 방향」, 『문학교육학』제30집, 한국문학교육학회, 2009, pp.357-392.
- 나소정, 「문예창작교육론의 구조적 지형과 논점」, 『한국문예창작』제23집, 한국문예창작학회, 2011, pp.133-163.
- 문선희 · 김은주 · 이삼형, 「작문 교육 관점에서 대화주의와 신수사학 비교고찰」, 『국어교육학연구』제46집, 국어교육학회, 2013, pp.363-387.
- 정진석, 「소설교육에서 소통론의 실천 양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학연구』제49집, 국어교육학회, 2014, pp.585-623.
- 장영길, 「문예창작교육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예창작』제1집, 한국문예창작학회, 2002, pp.255-275.
- 이미란, 「창작 소설의 평가 기준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제42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pp.355-379.
- 윤재연, 「대학 글쓰기에서의 읽기와 쓰기 통합 방안 모색」, 『한민족어문학』제66집, 한민족어문학회, 2014, pp.113-141.
- 홍인영, 「소설의 수사적 읽기 교육 연구를 위한 시론(詩論)」, 『한민족어문학』제80집, 한민족어문학회, 2018, pp.41-66.

Abstract

## Seeking Effective Methodology of Novel Creation Education

Kim, Chun-gyu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paths toward developing an effective methodology for novel creation education. This study explored the direction of creative education through changes and trends in novel creative education, an integrated plan for reading text and novel creative education, and a book-making program to promote novel creation. Also, several researchers have noted that various texts read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creative process influence writing.

This study focused on integrating text reading, novel creation education, and book-making programs. This goal of this program was to enable learners to realize that they can create something, and develop the ability and attitude to self-publish books in the future. Thus, learners can create novels by selecting subjects related to their interests. To this end, the process of teaching text reading in creative step by step fashion is described in detail. Additionally, the book-making program is suitable for proceeding as a collaborative class of instructors and learners.

The final goal of the program is to develop the ability to read and analyze text and to complete novels in more specific ways. Thus, the search for effective methodology in novel creation education will be a path towards facilitating the book-making program and creative methods in detail.

Key Word: Text reading, creative education, novel creation practices, integrated education, book-making programs

김춘규

소속: 국립순천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강사

전자우편: [kcg9797@nate.com](mailto:kcg9797@nate.com)

이 논문은 2020년 01월 29일 투고되어  
2020년 03월 0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0년 03월 11일 게재 확정됨.